



신동욱 옮김
창해/A5신/422면 내외/각 13,000원

누가 뭐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대 담론'은 세계화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계화현상을 외면하고서는 인간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비단 경제문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확고부동한 트렌드가 바로 세계화다.

세계화의 파장 생생히 그려

그래서 세계화에 관한 연구와 저서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요령서에서,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숨겨진 무한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기업의 손자병법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웬만큼 세계화에 앞서가는 사람이라도 허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처럼 닥쳐오는 세계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용기와 자신에 찬 로드맵(Roadmap)을 그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세계화 관련 연구나 저서들이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공백에서 오는 정신적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지적 궁핍증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세계화시대의 백서이자 인류의 미래를 위한 친절하고 완벽한 안내서라는 찬사가 전혀 어색하지 않는 역작이다. '세계화는 덧인가, 기회인가'라는 부제를 보고 지천으로 널려 있는 세계화 관련서적의 하나겠거니 생각한다면 완전히 오판이다. 《뉴욕타임즈》지의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의 타고난 기자정신에 뿌리를 둔 예리함과 지적 탐구력, 분석력이 결합된 걸작이다.

세계화 시대 '두마리 토끼'를 잡는 법

토머스 L.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전2권)》를 읽고

박시룡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세계화라는 주제를 다룬 이 책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를 상징하는 '렉서스'와 세계화 이전 시대의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플롯의 기본 뼈대를 이룬다. 지은이는 여기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둘 다 취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재미있다. 방대한 규모에다 세계화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눈을 떼기 어렵다. 어째서 세계화가 냉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틀이며, 이런 틀의 변화가 몰고 오는 지구적 규모의 파장을 태국의 어느 길거리부터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종횡무진 넘나들며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삼국지》나 무협소설을 읽을 때와 비슷한 흥분과 스릴이 있다. 기자만이 확보할 수 있는 현장성과 수많은 사례들을 웅만한 학자 뺨치는 창의적 이론과 주장을 바탕으로, 그리고 빈틈없는 플롯을 바탕으로 세계화 드라마를 정교하게 전개함으로써 흔한 르포나 사건의 기록수준을 뛰어 넘는다. 자칫 진부하게 느껴지는 주제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전문가든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는 점에서 저널리스트의 인간미가 느껴진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사이의 갈등과 충돌 이 책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를 상징하는 렉서스와 세계화 이전 시대의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플롯의 기본 뼈대를 이룬다.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실감나게 전개되는 스토리의 재미에 빠져 읽어나가다보면 자연스레 뽀얀 안갯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 세계화의 실체가 확연하게 시야에 들어

오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전략이니 대책이니 하는 것들은 저절로 의식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둘 다 취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길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단순히 세계화 예찬론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과거 어느 체제보다도 인류에게 풍요와 평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체제는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문제를 비롯해 무체급 무한경쟁시대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인 지구촌의 새로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세계화시대의 경기장 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이 과연 자국 이익의 극대화와 지구촌 인류의 공동번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점차 강렬해지고 있는 반세계화 무드를 가볍게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세계화 전도사인 저자가 균형된 시각을 갖추고 있음을 반증한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지적 탐구로는 세계화 시대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둘 다 향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 해답을 자신있게 제시하고 있다.●